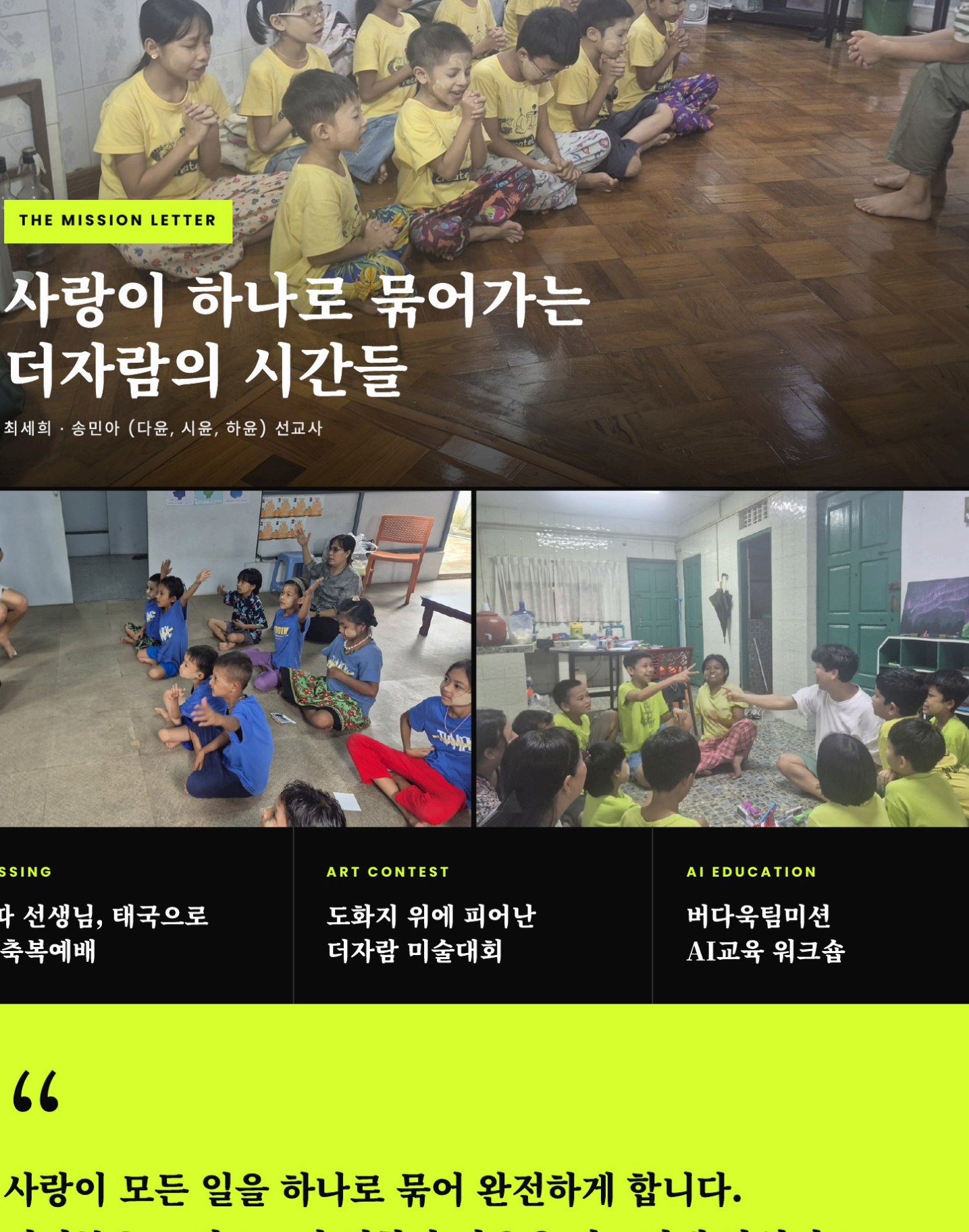


MYANMAR

선교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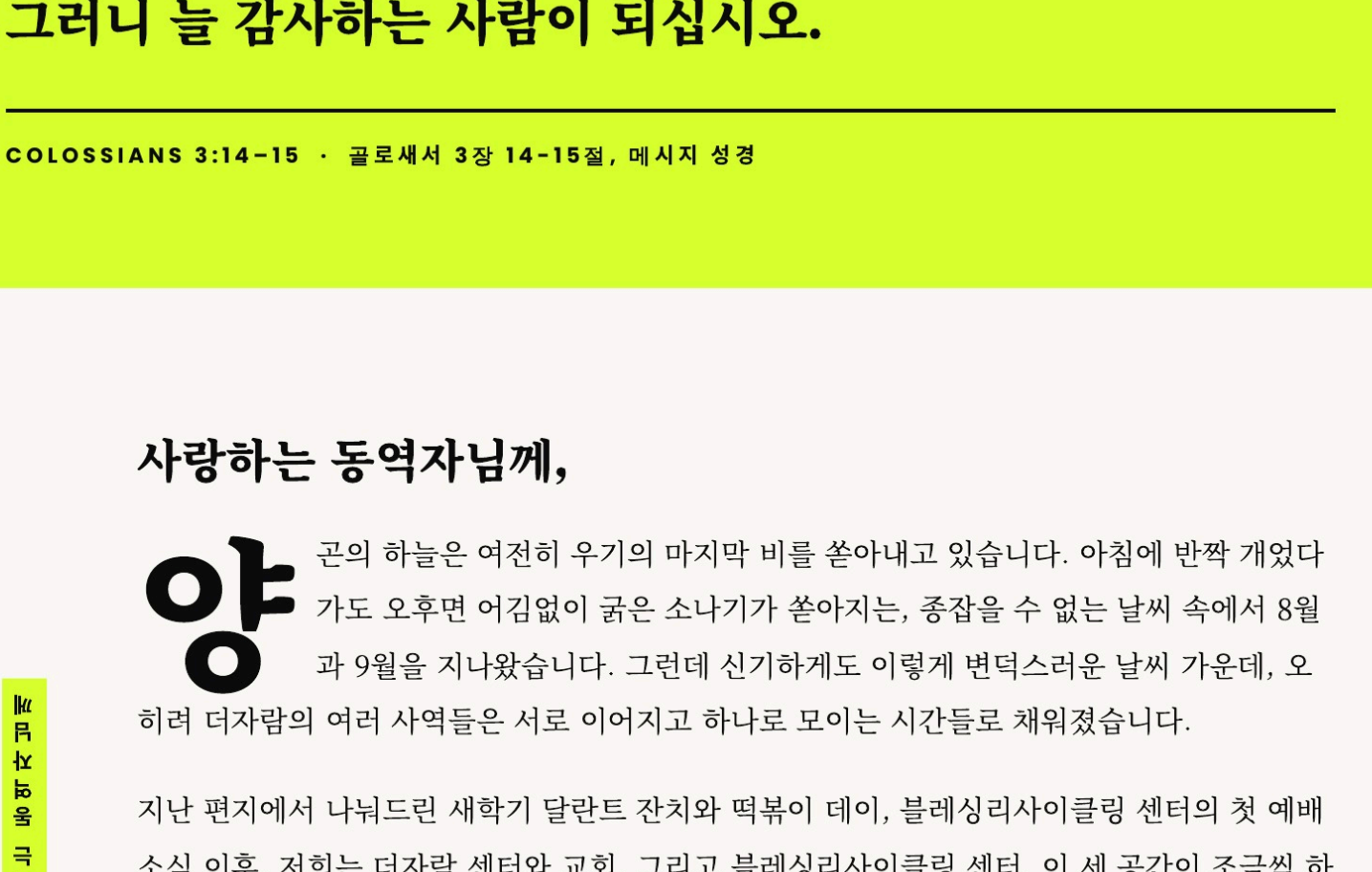
ISSUE 32 · 2026



THE MISSION LETTER

사랑이 하나로 묶어가는 더자람의 시간들

최세희 · 송민아 (다운, 시윤, 하윤) 교사



BLESSING 따따 선생님, 태국으로 — 축복예배 **ART CONTEST** 도화지 위에 피어난 더자람 더자람 미술대회 **AI EDUCATION** 바다옥탑미션 AI교육 워크숍

“
사랑이 모든 일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COLOSSIANS 3:14-15 · 골로새서 3장 14-15절, 메시지 성경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양곤의 하늘은 여전히 우기의 마지막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반짝 깨었다가도 오후면 어김없이 꾀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강잠을 수 없는 날씨 속에서 8월과 9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오히려 더자람의 여러 사업들은 서로 이어지고 하나로 모이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나뉘었던 새학기 달란트 잔치와 떡볶이 데이, 블레스링사이클링 센터의 첫 예배 소식 이후, 저희는 더자람 센터와 교회, 그리고 블레스링사이클링 센터, 이 세 공간이 조금씩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바다옥탑미션 동역 가정들과의 연합도 한 걸음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흠뻑 젖어 있던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따따 선생님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위한 동행예배 소식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이 모든 걸음의 뿌리가 되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난 두 달의 소식을 전합니다.

FROM YANGON / THE MORE GROWTH MISSION MINISTRY

01 도화지 위에 피어난 더자람 02 말쑤이 손에 들려지다 03 따따 선생님, 태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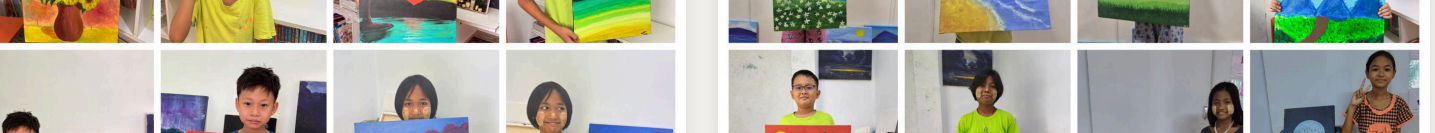
04 바다옥탑미션 · AI교육 워크숍 05 조용히 살아가는 뿌리 06 다운, 시윤, 하윤 이야기

07 10년째를 앞두고 · 안식월

ART CONTEST · 8.2

도화지 위에 피어난 더자람 — 어린이 미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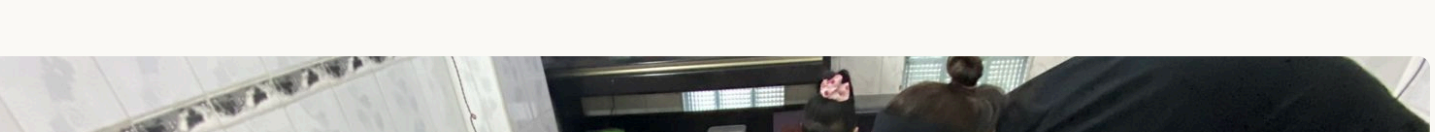
8월 2일, 더자람 센터와 더자람 교회, 그리고 블레스링사이클링 센터, 세 공간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작은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방 아래서, 각기 다른 형편으로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여러 가지 미술 재료를 마주한 자리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났습니다.



그림에 몰두한 시간 자비하 베풀어 주는 아이들 바닥에 둘러앉아 색을 입히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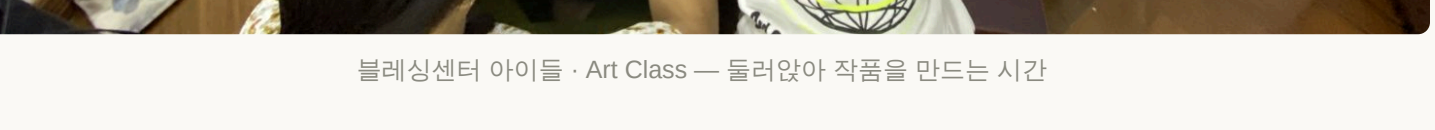
No.01 노을 지는 호수 No.02 해바라기 꽃병 No.03 알록달록 도시



No.04 활쫓으로 빛은 친구들 No.05 숲 위로 번지는 보랏빛 하늘 한자리에 전시된 미술대회 작품들

아이들이 도화지 위에 그려낸 알록달록한 세상처럼, 이 아이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센터의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리사이클링 센터를 오가는 동네 아이들 그날만큼은 구분 없이 한데 섞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공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섬기던 사역이 이렇게 조금씩 하나의 더자람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더자람 미술대회에 함께한 아이들과 작품들

BLESSING CENTER · ART CLASS

블레스센터 아이들 Art Class



블레스센터 아이들 · Art Class — 둘러앉아 작품을 만드는 시간



내가 만든 작은 작품 은반 뒤의 작품 완성의 기쁨

THE WORD · 8.4

말쑤이 손에 들려지다 — 대조성경 전달식

8월 4일, 미술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미얀마양곤선서공회와의 공동행사를 통해 대조성경(미얀마어·영어)을 전달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문서선교의 작은 결실 하나가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었습니다.



대조성경(미얀마어·영어) 전달식

현지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한지, 문서선교의 현장에 설 때마다 새삼 깨닫습니다. 이 말쑤이 책장에 꽂혀만 있지 않고, 더자람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질 함께 읽혀지기를,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LESSING · 축복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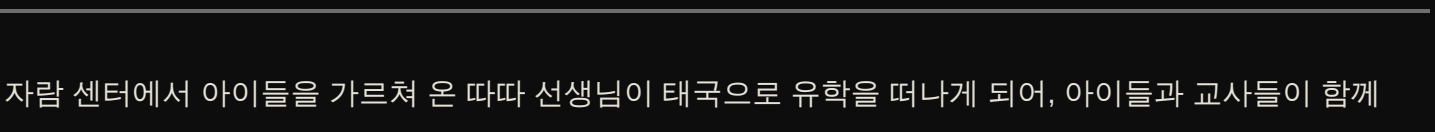
따따 선생님, 태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더자람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따따 선생님이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여정을 위한 동행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공부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박수의 웃음으로 선생님을 축복하는 시간

예배 뒤에는 아이들이 카드와 꽃, 작은 선물과 케이크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서로 앉아 주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카드를 읽는 시간 꽃과 선물 따뜻한 포옹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아쉽지만, 사랑으로 가르치고 배운 시간은 아이들 마음에 오래 남으리라 믿습니다.

따따 선생님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더자람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이어가도록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ADAUK TEAM MISSION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바다옥탑미션

8월 11일, 출례구 “약속의 땅 교회”에서 바다옥탑미션 정기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을 마친 뒤에 또 예배가 펼쳐지는 감동입니다. 빠르기는 시대의 도구를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고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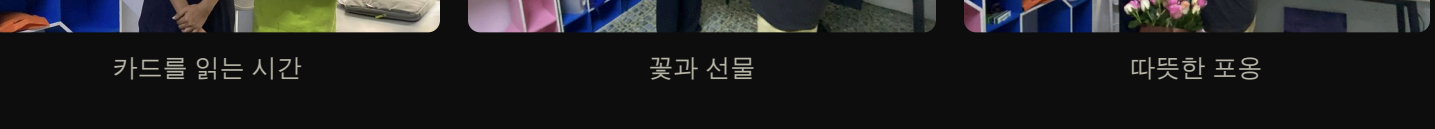


약속의 땅 교회 · 정기예배 예배 후 함께 모인 동역자들

AI EDUCATION WORKSHOP · 9.2

바다옥 선교 워크숍, AI교육

9월 2일에는 바다옥탑미션 동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바다옥 선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AI교육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기는 시대의 도구를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고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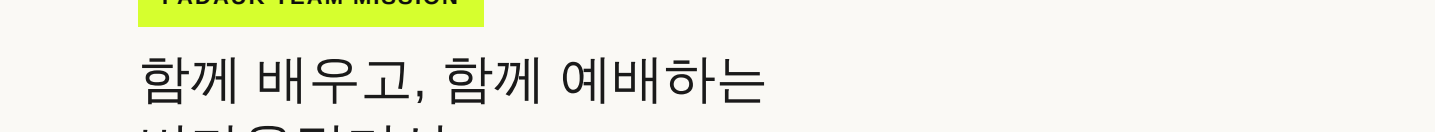
바다옥 선교 워크숍 · AI교육 — 동역 선교사님들과 함께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믿음처럼, 이 작은 연합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미얀마 땅에 선한 열매로 남기를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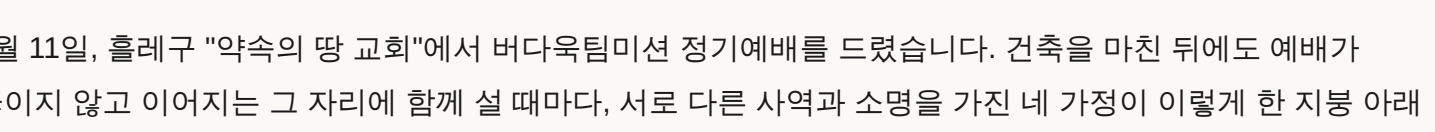
DEEP ROOTS

조용히 살아가는 뿌리 — 현지교회와 동역의 시간들

8월 14일 현지교회 임원회 회의, 8월 26일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의 PCK현지회 간담회, 9월 3일 PCM 양곤목회자 간담회, 9월 4일 정기운영회까지, 이 모든 사역의 결을 잇는 자리에는 조용한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만남들이 쌓여 더자람 사역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은 동역의 자리



식탁을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둘러앉아 나누는 이야기

특히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멀리서도 미얀마를 마음에 품고 함께해 주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FAMILY · STORY

다운, 시윤, 하윤 이야기

다운은 9월 19일과 20일, 이들 동안 미얀마인교회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다운이가 주일학교 성경학교의 찬양과 율동을 듣는 보조교사로 함께했습니다. 배우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 앞에서 손짓 하나 웃음 하나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운이가 참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스리워하던 다운이가 둘째 날에는 동생들보다 먼저 앉아 나와 율동을 보여주며 함께 웃는 모습에, 지켜본 저희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

다운, 시윤, 하윤 이야기는 다운, 시윤, 하윤이가 미얀마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FAMILY NEWS

10년째를 앞두고 — 안식월을 위한 기도

2017년 12월 양곤에 온 뒤, 내년이면 사역 10년째를 맞습니다. 돌아보면 결을 담은 은혜였고, 기도와 후원으로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와 루페타 속에서 6년 차 안식년을 마무리 달려온 만큼, 이제는 잠시 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지난 걸음을 돌아보고, 다운, 시윤, 하윤이와 함께 웃으며 쉬는 안식월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 가정에 새 힘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되도록, 손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RAYER

함께 마음 모을 기도제목

FOR MYANMAR

미얀마를 위한 기도

01 더자람 센터·교회·블레스링사이클링 센터, 세 공간의 아이들이 미술대회를 계기로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깊어지도록

02 전달받은 대조성경이 더자람 아이들과 교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읽히는 말씀이 되도록

03 태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따따 선생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자람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이어가도록

04 바다옥탑미션의 연합 학교(약속의 땅 교회, 시교육 워크숍)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05 현지교회와 여러 협력 모임을 통해 미얀마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지혜와 연합을 이루어가도록

FOR OUR FAMILY

가정을 위한 기도

01 저희 가정의 우기의 슬픔과 지친 기운이 위로 계절을 지나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02 다운, 시윤, 하윤 세 자녀가 새 학기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특히 다운이가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계속 배워가도록

03 선교사 가정과 바다옥탑미션 동역 가정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계속해서 지켜가도록

04 우리 10년째를 앞두고 계속적인 안식월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되어, 가정이 함께 쉬며 새 힘과 기쁨을 얻도록

05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고 사랑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의 가정마다 넉넉한 쉼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목사님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최세희, 송민아 선교사 다운, 시윤, 하윤 올림

2026. 09. 23

CONTACT

최세희 선교사 Ph +95 9 441136118 카카오톡 vision0077 icpp30@hanmail.net

송민아 선교사 Ph +95 9 441136117 카카오톡 gogosong01 gogosong01@naver.com

SUPPORT

국민은행 624201-024-222935 예금주 최세희 (개인계좌)

우리은행 1002-731-331916 예금주 송민아 (개인계좌)

본 선교서신은 미얀마 양곤 사역을 마음 모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시는 분들을 전하며